

전남 수산업, 기업화로 덩치 키운다

道, 2010년까지 1,324억 투자…전문 브랜드 개발 등 나서

전남도가 수산업의 덩치를 키우기 업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전통 경영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한 수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어선과 양식어장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두 1천324억원을 투자하는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모두 1천324억원을 들여 ▲어선 어업 대형화(437억원)▲양식어업 공동화(847억원)▲수산전문 브랜드 개발(41억원) 등에 나선다.

도는 어선 어업의 경우 연안 어선 2~3척을 합쳐 1척의 균해어선을 건조하거나, 타 시·도 균해어선(8~10t 이상)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재 604척에 불과한 균해어선 규모를 634척으로 늘리고, 3~4척의 균해어선을 끓어 10개의 균해어업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또 연근해어선으로 표획하는 주요 어종 가운데 첫새우·낙지·홍어·조기(굴기) 등 타 시·도보다 어획량이 많은 품종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등 경영조직을 육성해 생산·가공·유통을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양식어업은 11개 품목에 대한 어업 법인 등 경영조직 육성과 대체어장 개발 등으로 기업화를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복·홍합은 생산·가공·유통이 가능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친환경김과 매생이는 어촌계 공동체를 육성해 생산과 가공을

맡긴다.

도는 또 유자님치와 벤장어, 조피볼락, 벌교꼬마, 고시래기, 톳, 미역 등 7개 품목은 영어조합법인을 만들도록 유도해 어민들이 생산과 유통에 공동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전남 수산물 전문 브랜드 개발·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대도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선다.

도는 이를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연간 3천만원의 어가 소득은 3천900만원으로, 수산물 생산은 93만6천噸에서 1천100만t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새 정부도 여수엑스포 성공 지원을”

BIE 사무총장, 인수위장에 요청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비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Vicente Gonzalez Loscertales·스페인)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 수위원회에 이경숙 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준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직변화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작고 실용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개편되더라도 여전히 여수세계박람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합쳐짐으로써 교통시설 등이 원만히 건설되는 등 시너지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park@

법인카드로 노래방비 쓰고 치료비 보태고…

순천·강진·신안 공무원 도덕적 해이

전남도 지난해 하반기 감사

순천·강진·신안 등 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요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범인카드로 공금을 유용하거나, 음용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플루언서 예방접종약을 과다구입한 후 폐기하거나, 도로 접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지하는 등 예산 낭비·세수 확보 소홀 등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순천·강진·신안 등 3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벌여 383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 조치 했으며, 특히

회수·감면 등 18억여원의 재정상의 조치도 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순천시의 경우 노래연습장 등에서 범인 카드를 사용한 후 보건의료단체 시책협의회에 썼다며 기관운영추진비에서 28만 6천원을 빼 썼고, 신안군도 군의원이 직접 범인 카드를 들고 다니며 노래방·가요주점(11건 177만 6천원), 한의원 치료비 및 개인차량 가스충전비(8건·64만 3천원)를 의정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강진군에서도 노래방과 가요주점

에서 4차례 58만 5천원 상당을 사용한 뒤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위법하게 부당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 정원 4년동안 10명 감축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광주시는 167명 늘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4년 6월 3천361명이었던 전남도 공무원 정원이 지난 1월 말 현재 3천351명으로 최근 4년새 10명이 줄었다.

이는 전국 광역자체들이 큰 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정원이 특별자치도 승격과 함께 1천523명에서 5천124명으로 3천601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경기도 1천724명, 인천시 678명이 각각 늘었다.

광주시도 일반직 52명, 소방직 115명 등 총 167명의 정원이 늘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중앙부처 조직과 전남도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日 만정

- 김종우



죽으란 법은 없나봐요

전남도 공무원 정원 4년동안 10명 감축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광주시는 167명 늘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4년 6월 3천361명이었던 전남도 공무원 정원이 지난 1월 말 현재 3천351명으로 최근 4년새 10명이 줄었다.

이는 전국 광역자체들이 큰 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의 정원이 특별자치도 승격과 함께 1천523명에서 5천124명으로 3천601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경기도 1천724명, 인천시 678명이 각각 늘었다.

광주시도 일반직 52명, 소방직 115명 등 총 167명의 정원이 늘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중앙부처 조직과 전남도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직원 모집

두께 외식산업(주)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두께에서 인재를 구합니다.

■ 물류기사 ○명 35세이하
■ 영양사 ○명 영양사
■ 외식영업 ○명 제외

■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께 경영지원본부
■ 062) 571-6000

2월 14일(목)

■ 물류기사
■ 영양사
■ 외식영업
■ 두